

지역 매아리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김제지평선축제 축하 비행 확정

10월 3일 사전비행 · 6일 실제비행 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대한민국 최고 축제인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시 한번 만나 지평선의 하늘을 수놓을 계획을 발표하였다.

축하비행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축제 기간 중 10월 3일(개천절) 사전비행과 10월 6일

실제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두 번 다 휴일에 펼쳐져 보다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이글스는 꿈과 창공을 가르며 8대의 항공기를 편대로 구성 된 특수비행팀으로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군으로 지난 2012년 영국

의 워딩턴 국제 에어쇼와 리아트 국제 에어쇼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는 등 세계 최고 공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작년 전북 최초 유치로 김제지평선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블랙이글스를 다시 한 번 유치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김제 시민들에게 큰 자랑거리이다.”며, 또한 “대한민국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 김제지평선축제에 오셔서 블랙이글스가 푸른 하늘에 그리는 장관과 유색벼로 너른 땅에 그린 장관을 감상하시며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하나 가지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를 주제로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백골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처음으로 연장된 10일 간의 축제 기간 동안 시내권 불거리 조성과 이벤트 추진 등 시내권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으로 글로벌 축제에 걸맞는 위상과 제21회를 맞는 축제의 성숙함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미세먼지의 공습에 실내 놀이시설인 완주군 '놀토피아'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 속 완주 '놀토피아' 인기

두 달 만에 2만2200여명 다녀가

미세먼지의 공습에 실내 놀이시설인 완주군 '놀토피아'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놀토피아는 지난해 연말까지의 이용객 숫자인 5만7000명의 40%에 해당하는 2만2200명이 단 두 달 만에 다녀갔다.

주로 가족단위의 이용객들로 개장시간인 오전 9시부터 찾아와 오후 늦게까지 놀토피아에서 머물고 있다.

모험놀이시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이용객들은 그곳에서 잠시 쉬고 다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형태로 놀토피아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완주 놀토피아는 처음 설치 때부터 공기 환경에 신경을

써 대형 공기청정기 4대가 동종이다. 최근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군은 추가로 4대를 더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용 요금이 저렴한 것도 인기 요인이다. 어린이 이용자 기준 주말·휴일은 8000원으로, 평일은 6000원이다.

한 학부모는 “미세먼지가 심해 밖으로 나가기가 겁나는데 놀토피아는 요금도 저렴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 자주 찾는다”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놀토피아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교월동, 노인일자리 미세먼지 대응 교육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7일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며칠째 연이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과 함께 아침 안개도 심해 일자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미세먼지 대응행동요령과 교통안전 교육을 함께 병행하여 조별 근무활동지를 찾아가 진행했다. 아울러 조별 근무자들에게 KF80 마스크를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방법을 알려드리고, 미세먼지에 방교육자료를 제공했다.

노인일자리 팀장은 “노인일자리 근무 활동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주어 감사하고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미세먼지농도를 실시간 확인하여 어르신들이 근무활동시 안전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구마, 양파, 수박 등

올해 재배면적 증가 전망

완주군의 올해 주요농산물 중 고구마, 양파, 수박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7일 완주군은 수급안정을 위해 실시한 주요농산물의 생산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생산예측조사는 전국 지자체 중 완주군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후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표한 재배면적 의향에 따른 2019년 주요농산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257억 원 증가한 1363억 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주요농산물인 14대 품목 중 고구마(12.4%), 양파(12.3%), 수박(6.3%), 마늘(2.8%), 쌀(1.9%), 딸기(1.4%), 감(1.4%), 생강(0.8%), 파(0.8%)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가지(-19.8%), 상추(-9.5%), 무(-2.9%), 고추(-0.2%), 배추(-0.1%)의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구마는 이서면을 중심으로 규모화하려는 농가가 많아짐에 따라 20ha 가량의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양파는 후작재배에 적합하고 농업의 수매사업이 더해져 46ha 가량 늘 것으로 분석했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은 “조사 결과를 마을회관 등에 배포해 경영체가 올해 생산품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전수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관리는 상형식 맞춤형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농정시스템의 영토를 구축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평선의 하늘을 수놓을 계획이다.

완주군 청년구직자 지역 정착 돕는다

직무역량 강화 · 네트워킹 지원사업 펼쳐기로

완주군이 취업에 희망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친다.

완주군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111명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

공해, 자선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완주군은 이 사업을 추진해 총 111명을 선발했다.

현재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이에 더해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 이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를 실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온누리살이협동조합 컨소시엄’을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과 컨소시엄은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심화교육을 80시간가량 추진하고,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해 참여 청년 간의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는 오는 3월 12일부터 농한기에 맞춰있던 농기계를 수리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9월까지 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농기계 수리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기계 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수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분무기 등의 정비 점검과 여성 친화형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인드론활용 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

김제시, 농업용 드론 20대 구입 지원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농업인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해소와 농약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400백 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드론 20대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동안 농업용 드론 구입을 희망

하는 농업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평가를 통해 2019년 사업농가로 최종 20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농가에게는 2000만원(보조 50%, 자담 50%) 한도내에서 농업용 드론 및 부속장비 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경우 농약사용량 절감은 물론 방제노동력을 최고 80%까지 절감할 수 있어 농가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으며 농업용드론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 관심이 많아 올해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드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